

무역플랫폼 구축을 통한 한일무역 고도화에 관한 연구

貿易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を通じた韓日貿易の高度化に関する研究

박호신(한국무역연구원)

朴昊信(韓國貿易研究院)

1. 서론

중소 수출기업이 첨단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역 규제 장벽 및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제품개발이나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많다. 이는 대부분 무역 실행 전 비용 추산 및 문제점 체크가 어려우며, 정보획득에 장시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관련 정보 및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 및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 타진부터 진행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이마켓 플레이스의 발달, 해외직구의 증가 등 다양한 무역이 시도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으로서의 무역업 창업까지 실현되는 사례는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 청년 창업의 하나로서 무역업 창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무역실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제적으로 무역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다.

한국은 무역업에 대한 인적규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또는 무역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국내 거래와는 달리, 무역은 해당 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어떠한 규제가 있고, 어떠한 요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무역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들이 초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용추산도 어려워져서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예상치 않은 비용의 지출을 가져와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무역과 관련된 수단 및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는 국가 간 통상 분야에 있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각종 비용계산을 사전에 해볼 수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 열기가 실제 무역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역규제가 아니라 무역 정보의 비대칭이라 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규제를 무역업자들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복잡해도 알면 쉬운 것이고, 아무리 간단한 것도 모르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방역, 검역 등의 국경관리(무역규제)를 현재와 같이 그대로 이행하면서 국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무역업자들이 무역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무역에 대한 규제 등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국가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구축되어 있는 주요 무역플랫폼을 비교 연구하고, 이들 플랫폼이 한일간 무역 고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 무역플랫폼 분야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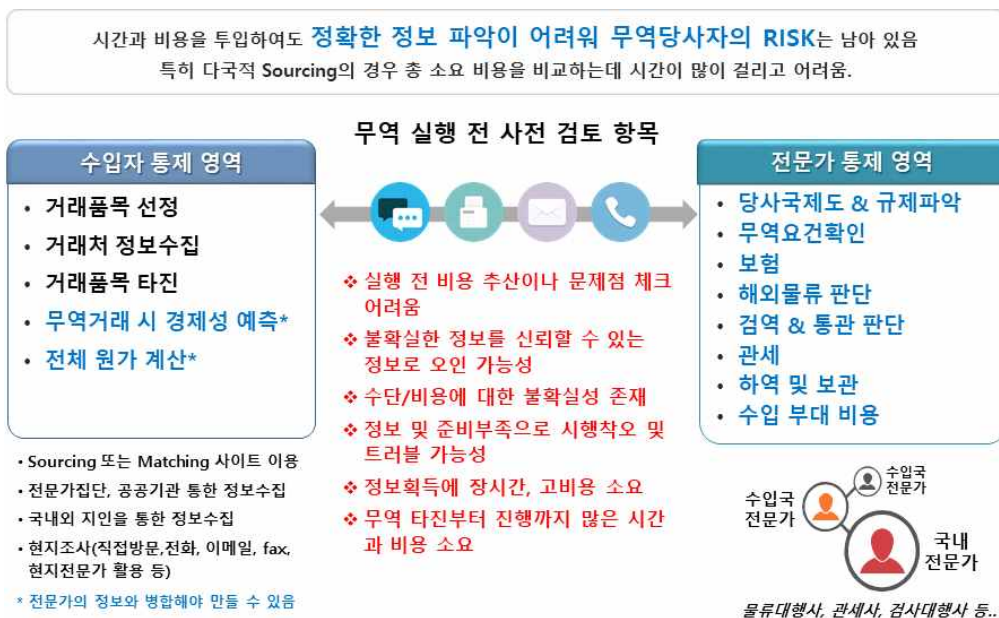
1) 무역 플랫폼 분야 트렌드

세계 모든 국가의 법령, 규제, 제도 등 무역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라서 무역 컨설팅 시장도 무역의 일부분에 대한 컨설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또한 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가의 무역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령, 규제, 제도, 데이터 등이 필요하며 그 데이터들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 어느 한 국가의 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무역은 세계 각국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음. 현재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그것도 특정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법령, 규제, 제도 등 무역관련 정보를 구축하려면 IT와 무역에 모두 정통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언어장벽도 극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현재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무역 컨설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IT와 무역에 모두 정통한 전문 인력들을 국가별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인력들이 매우 희소하며 언어장벽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제도와 정보를 연구해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일부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등에서 본인들의 사업영역의 범주 내에서 당해 국가의 수출입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내용도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실제 무역업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1] 현 무역거래 시 문제점 분석

2) 무역 플랫폼 분야 경쟁현황

알리바바 닷컴(<http://www.alibaba.com>)은 바이어와 셀러 간 만남의 장터를 마련해 주는 B2B 거래주선 사이트로서, 무역관련 사용자들이 알리바바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검색하게 해주는 것이 거의 전부인 전형적인 With Whom 사이트이다. 바이어, 셀러 간마켓 플레이스 구축이 전부이므로 사이트 자체를 구축하는 데에는 1달이 채 걸리지 않을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수익모델은 유료 사용자들이 알리바바 닷컴에서 검색시 자신의 제품이 상위에 검색하게 해 주는 것이다. 비용은 연간 3000불(한화 약 330만원) 정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B2C 쇼핑몰(타오바오), 전자결제(알리페이) 등 여타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이다. 알리바바 닷컴은 드넓은 무역의 영역에서 극히 일부만을 취급하고 있다.

무역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소위 How much, How to 영역은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알리바바 닷컴의 한계이다. 또한 물품무역이 아닌 무역관련 서비스 거래 영역은 거래사이트가 따로 없다.

3) 현재 무역 플랫폼 분야의 문제점 및 기회요소

IT 세계에서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IT 선행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퇴보한 선례들을 보이며 이를 입증하였다. 그래서 등장한 구호가 콘텐츠의 ‘글로벌화’인데, 한국에서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통하고 있는 콘텐츠는 아직 전무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한계 봉착의 주요 이유로는 콘텐츠 내용 자체가 국내용이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기획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주로 한국의 IT 산업이 주문제작형(소위 SI)에 치중되어 있음은 물론, 자생력을 갖는 솔루션 베이스인 경우에도 주로 소비, 오락, 쇼핑 기타 생활밀착형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구글 자동번역 시스템과 같이 근본적인 산업재형 콘텐츠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없다.

그 외에도, ①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의력 부족 ② 해외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템 발굴에 실패 ③ 언어장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풍조 ④ 해외 파트너나 연합군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업구조 ⑤ 근본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그치면서도 자신의 기술력을 믿는 풍조 ⑥ VC 등이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금 유입이 안되고 있는 점 ⑦ 누구나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해외 각국에도 저마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강자들이 존재하여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들고 있는 한계봉착 이유와 대책점에 그 타개책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콘텐츠 자체가 글로벌이어야 하며, ② 남이 쉽게 할 수 없어야 하고, ③ 지역적인 소비재보다 근본적인 산업재에 가까워져야 하고, ④ 언어장벽을 의식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하며, ⑤ 후발주자에 대한 Blocking이 가능한 지식기반의 콘텐츠 구조가 필요하고, ⑥ 처음부터 시야를 글로벌에 두고, 처음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해야 하며, ⑦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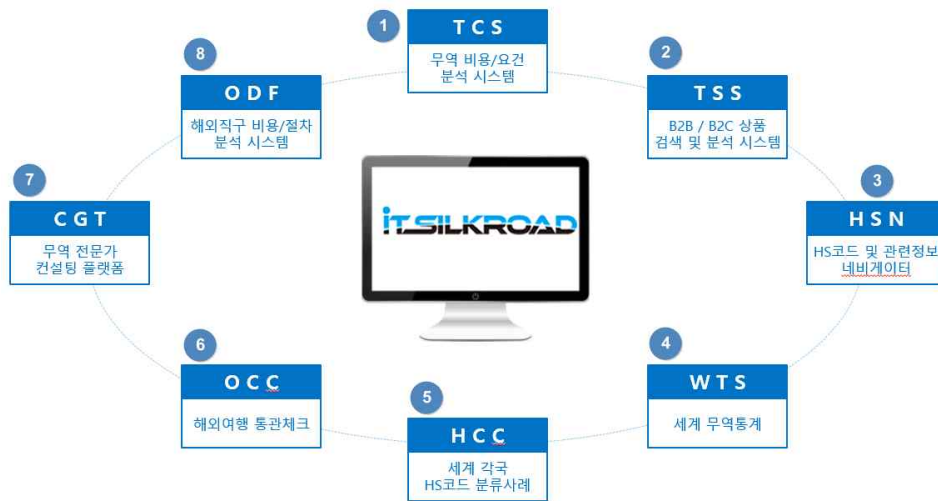
3. IT-Silkroad 플랫폼

1) IT-Silkroad 플랫폼 구조

IT-Silkroad 플랫폼은 신개념, 원스탑, 글로벌 무역플랫폼으로서 무역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요건을 분석해주고, 해외직구,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이르기까지 국제 물품거래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전자무역 플랫폼이다.

모든 내용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서비스 되고 있어서 언어 장벽이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초보무역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상세한 해설서를 구비하고 있는 등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다.

IT-Silkroad 플랫폼은 무역 비용/요건 분석시스템, 상품검색 및 분석시스템, HS코드 및 관련 정보 네비게이터, 세계 무역통계, HS코드 분류사례,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크, 무역컨설팅그룹 플랫폼, 해외직구 비용/절차 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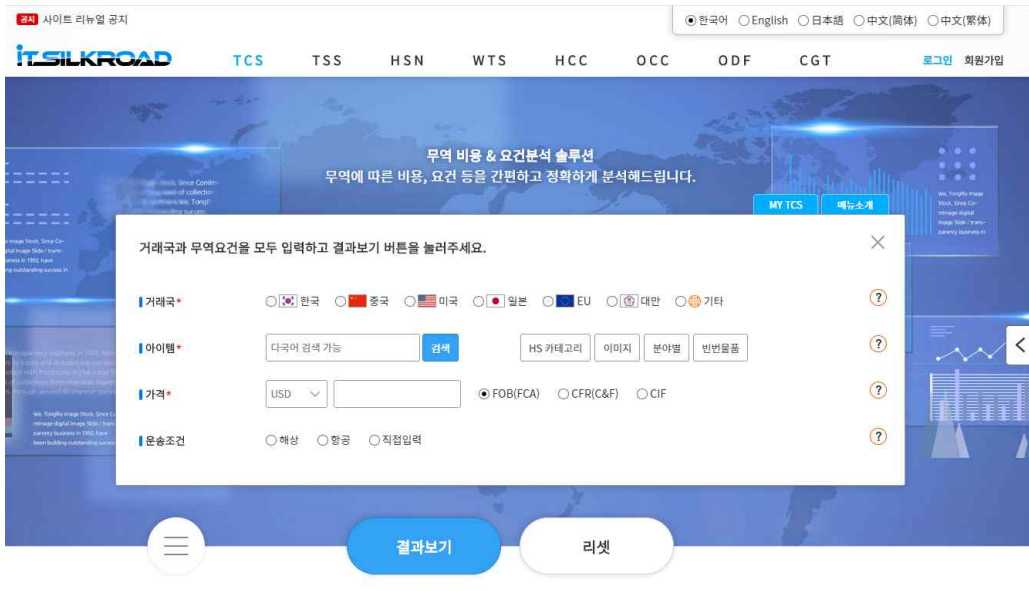


[그림 2] IT-Silkroad 플랫폼 구성도

2) 무역 비용/요건 분석시스템(Trade Cost & requirement System)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알기 어려운 정보인 How much? How to? 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서, 수출입하는 물품의 기본 정보(거래국, 품명, 거래가격, 운송조건 등)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각종 비용과 요건 기타 필요사항을 맞춤형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려면, HS 내비게이션 검색엔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HS 내비게이션 검색엔진은 입력된 물품명, 이미지 등으로 HS코드를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그림 3] TCS (무역 비용/요건 분석시스템) 입력화면



[그림 4] TCS (무역 비용/요건 분석시스템) 결과화면

3) 상품검색 및 분석시스템 (Total Sourcing System)

무역 또는 인터넷 거래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사이트의 상품을 한꺼번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한 시스템이다. 일괄하여 상품 소싱이 가능하도록 키워드 하나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검색 언어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언어로 검색해도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HS코드 및 관련정보 네비게이터(Harmonized System Navigator)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큰 국가의 HS 코드 및 그에 딸린 정보를 일괄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EU 28개국 포함 총 33개 국가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검색 방법은 키워드 검색, HS 코드 검색, 카테고리 검색, 이미지 검색 등 총 5개의 검색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결과는 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5)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크 (Overseas Clearance Check)

면세점이나 해외여행 후 구입물품이나 화폐를 휴대하여 입국 시 통관 관련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현재 한국입국의 경우와 중국입국의 경우가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국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및 과세 여부와 과세 시에 그 세종별 금액과 계산식을 안내해주고 있다. 또한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정보, 금지 또는 제한 품목 등도 안내해주고 있다.

6) 직구필터(Overseas Direct import Fi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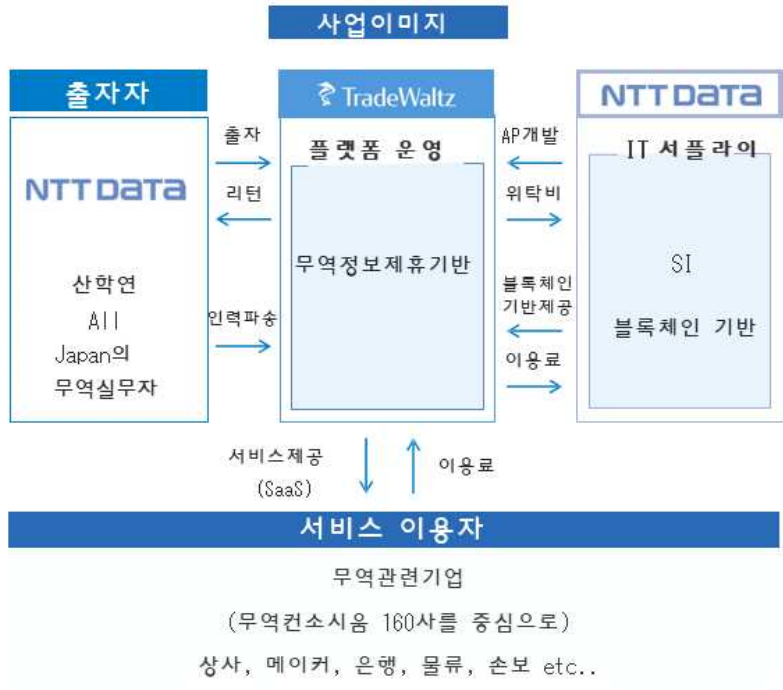
개인사용 목적이고 소액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과 요건심사가 면제되고, 통관도 신속하게 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물건의 가격, 수량,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서 일반인들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구필터는 직구하는 물품의 ① 면세여부 ② 신속통관여부 ③ 요건심사 면제여부를 사용자의 입력 조건에 따라 그 가부와 이유를 안내하고 있다.

4. 트레이드 왈츠(TradeWaltz)

1) 트레이드 왈츠 사업 개요

트레이드 왈츠는 무역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화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설립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횡단적으로 B2B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무역 정보 연계 플랫폼이다.

트레이드 왈츠는 이용자가 1개업종이 아닌 전 업종으로서 산업 횡단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DF 형식이 아닌 구조화(유용 가능) 데이터로 보관함으로써 폭 넓게 서류를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유용 가능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에코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무역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5] 트레이드 왈츠 사업 개요

2) SAP, TOSS, NACCS 등 대표적인 플랫폼과 연계

트레이드 왈츠는 각 산업 PF와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다. SAP, TOSS, NACCS 등 대표적인 플랫폼과 연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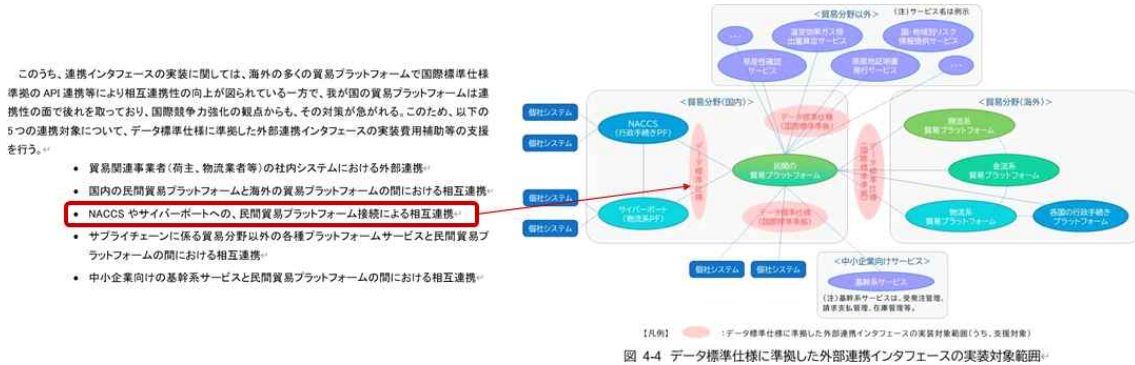


[그림 6] 트레이드 왈츠의 플랫폼 간 연결

3) 일본 정부와 연계한 무역 DX 추진방안 마련

트레이드 왈츠는 무역실무자와 PF, PF 간을 연결하는 실장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경제산업성 '무역분야 디지털화의 기본방향 연구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CyberPort와도 연계한 무역 디지털화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 중 PF간을 연계하는 실장비용 보조 등도 검토하고 있다.



4) 해외전개 : 각국 무역 PF와의 연계

국제회의 APEC에서 싱가포르·태국·호주·뉴질랜드와의 5개국 연계 계획이 발표되었다. 트레이드 왈츠는 일본정부 지원을 받아 각국 무역플랫폼 NTP(싱가포르), NDTP(태국), TradeWindow(호주 NZ)와 2022년에 연계하였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각 대륙의 나라 10개국 정도로부터 무역 컨소시엄·플랫폼 설립을 향한 상담 중이다.

2022년 4월 23일에는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만나 아세안 전체 및 캄보디아로의 트레이드 왈츠 전개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캄보디아 전개에 관해서는 석첸다 장관이 담당 창구가 된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다.



[그림 7] 트레이드 왈츠의 제휴관계

5) TradeWaltz Ver.2의 새로운 기능

구 컨소시엄 사양(TradeWaltz. V1)은 무역 장부의 전자화로서, 거래 전체 관리나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무역 원스톱 플랫폼을 무역 장부의 전자화를 주축으로 실현하고 있지만, 문서 공유로는 거래의 전체 관리상을 알 수 없다. 즉, 무역 장부는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일 뿐이다.

반면, 새로운 컨소시엄 사양(TradeWaltz. V2)은 기업 간 프로세스 관리의 전자화로 축을 옮겨 상태 관리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실현하였다. 무역 원스톱 플랫폼을 무역 거래의 전자화를 주축으로 실현함으로써, 기업 간 정보 전달이 발생하는 작업을 '업무 프로세스'로 태스크화해 상태의 가시화, 커뮤니케이션의 포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8] 트레이드 왈츠의 Ver.2

5. 결론

1) 한일간 무역플랫폼 연계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증대

HS 내비게이션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IT-Silkroad 플랫폼은 인터넷망 구성원리와 유사하므로 IT를 수단으로 하는 무역분야에서는 국제적인 SOC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구축이 진척될수록 비즈니스 가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의 수출입규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표준을 지향하면서 한일간 무역플랫폼 연계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한일 간 무역은 물론,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틀로서 활용될 수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특정국에서의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 기타 무역참여 주체의 욕구를 갈등 없이 충족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가간 비즈니스 가치 증대하는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온라인 비즈니스 및 무역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IT-Silkroad 플랫폼의 HS 내비게이션 검색엔진을 통하여 쉽게 HS코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IT-Silkroad 플랫폼을 통하여 국가마다 물품마다 다른 무역장벽, 무역세금제도, 각종 무역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실패없이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의 증가 등 이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무역이 점차 국가 간 무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높아가고 상황에서, HS 내비게이션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IT-Silkroad 플랫폼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무역에 대한 창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 세계 최초, 유일의 시스템

한일 간 무역플랫폼이 연계 구축된다면, 무역 Process상 무역 플랫폼의 전단계인 Sourcing & Matching 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 업무를 진행하는 속도에 익숙해진 무역인에게 기존 방식의 느린 프로세스보다 즉각 반응형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NS, 알리바바와 같이 회원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인 무역 플랫폼도 일정규모의 회원을 확보하는 시점에서의 시장 가치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간 무역플랫폼이 연계 구축된다면, 절대적인 시장 우위(사용자 확보)를 점할 수 있으며, 일단 시장을 형성과 함께 사용자를 선점하면 경쟁 없이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 1년 이내에 무역플랫폼은 높은 시장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알리바바와 같은 업체에서 eWTP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TSilkroad 플랫폼의 기술과 트레이드 왈츠의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유입 및 유지는 다양한 Contents Provider들과의 연계하거나, 또는 무역 종사자의 업무진행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음으로써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장호, 최관선(2015).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김선남,김영빈,강경식(2016).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수용의도에 대한 실증연구-국제물류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8권 제2호, pp. 101-107.
- 김재현, 이상윤(2019) 물류기업의 물류플랫폼 참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vol,34,no1, pp.147-176.
- 송상화(2016), ICT 기반 활용 물류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104-107.
- 신현주 (2020). 국내 물류플랫폼의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1(2), 141-151.
- 신현주(2020), 국내 물류플랫폼의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貿易保險研究 제21권 제2호.
- 이재범, 김승윤, 장윤희 (2011). IT 거버넌스 활동과 정보시스템 성과 및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9(5), 235-251.
- 이지운, 오예은, 박근식, “물류플랫폼의 특성이 플랫폼 활용성에 따라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32 제1호, 2022년 2월, p.2.
- 시사점.
- 장진열·송상화(2022), 기술수용모형을 통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에서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SCM학회.
- 황현철, 송상화(2019), 기술수용모형을 통한 물류센터 내 물류로봇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제20권 제12호, 287-297.